

서울지역 국공립 박물관의 고령친화요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ge-Friendly Factors of National and Public Museums in Seoul

Author 김유진 Kim, Yu-Jin / 정희원,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박사과정
황연숙 Hwang, Yeon-Sook / 정희원,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정교수, 이학박사*

Abstract To address the global phenomenon of population aging, the WHO has proposed guidelines for creating age-friendly cities aimed a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senior citizens. Through this initiative, the organization aims to establish an urban environment system for all generations, including the elderly. Meanwhile,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nounced a plan to create public cultural facilities that will create a local community culture that anyone can use. Accordingly, this study seeks to analyze public museums created in age-friendly c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lderly. A checklist was developed based on evaluation criteria identifi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with the keywords "Age-friendly" and "Museums." An on-site survey was conducted on six case studies in Seoul, all of which have been operating specialized programs for the elderly since the 2020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based on previous research, "Physical Elements (Spatial Structure, Public Facilities)" and "Sensory Elements (Guidance System, Exhibits)" were identified as evaluation criteria for national and public museums in response to age-friendly cities. Second, the physical element was most evident, with a spatial structure and public facilities designed to accommodate the movement methods and access routes of the elderly. Third, in terms of sensory elements, color and brightness differences were applied to accommodate the decline in visual function of the elderly; however, the adjustment of font size was insufficien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hibition viewing support services, such as placing brochures such as the "Large Print Guide" at the entrance of the exhibition hall. Fourth, there is a need to create content that provides experiences through multisensory stimulation that are effective in preventing dementia and developing cognitive functions in the elderly.

Keywords 고령친화도시, 고령자, 국립 박물관, 공립박물관, 박물관
Age-Friendly City, Elderly, National Museum, Public Museum, Museu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 변화 추이를 제시한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인구 고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2025년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전망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전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나이 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에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가입함으로써 고령자만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전 세대가 화합 및 통합을 이루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Roh, 2015).¹⁾

한편,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공공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공립 문화시설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전망, 문화생활 범위 확대' 등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자의 이용을 함께 고려하는 공간 계획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의 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ysh@hanyang.ac.kr
** 본 연구는 2024년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1) 노권찬,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 노인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가 및 사회활동 제공을 포함하는 고령친화도시에 대응하여 국공립 박물관의 고령친화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고령자 이용을 고려한 공공 문화시설로의 개선 및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고령자의 여가 및 사회활동 제공을 포함하는 고령친화도시에 대응하여 서울지역 소재 국공립 문화시설 내 고령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 6곳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고령친화도시, 국공립 박물관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분석 과정을 통해 국공립 박물관의 고령친화요소 평가항목을 추출하여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셋째, 2020년대 이후 고령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지역 소재 국공립 박물관 사례 6곳을 선정하였다. 넷째, 도출된 분석 틀에 기초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고령친화도시

(1) 고령친화도시의 이해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친화도시를 활기찬 노년(Active Aging)과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같은 주요 가치에 기초하여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고령자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 구축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의 편의성, 주거환경의 안정성, 인력자원의 활용, 여가 및 사회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건강 및 지역돌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나이 들의 과정에 있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Seo, 2023).²⁾

(2)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현황

서울특별시는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의 비전에 기초하여 국내 지자체 중에 가장 먼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였고 서울특별시 내 지역구 11곳이 승인되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의 기존 법령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법령 제2장 제9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에 따르면, 고령자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설 확충과 함께 평생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³⁾

2) 서미진,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보행환경 분석모형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노인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2.2. 국공립 박물관

(1) 국공립 박물관의 이해

박물관은 문화·예술과 학문의 향유 및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평생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 보존 및 관리, 조사 및 연구, 전시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사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으로 분류한다.⁴⁾

국립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나 민속자료를 바탕으로 균형있는 문화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이다.⁵⁾ 공립 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향유를 목적으로 한다.⁶⁾ 이를 통해 유·무형의 지역 유산을 활용한 전시를 구성하여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Kim, 2013).⁷⁾

(2) 국공립 박물관의 공간구성

Wang(2023),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Kim(2018), Kim, Ahn, & Kim(2018), Choi(2017)의 선행연구를 통해 전시 및 교육시설, 서비스시설을 포함하는 이용자 측면의 ‘공공영역’과 연구·수장, 운영·관리시설을 포함하는 관리자 측면의 ‘비공공영역’으로 국공립 박물관 공간구성을 다음 <표 1>과 같이 재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국공립 박물관의 공간구성 중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국공립 박물관의 공간구성 선행연구 분석

선행연구	내용
Wang (2023)	- 전시공간, 외부공간, 교육공간, 서비스공간(카페, 상점 등)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 기본시설 : 전시실, 교육실, 회의실 등 - 편의시설 : 매개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자원시설 등
Kim (2018)	- 공공영역 : 상설 및 기획전시시설, 자료도서실 등 / 로비, 대표소, 안내소, 물품보관소, 강의실, 매점, 위생시설 등 - 비공공영역 : 연구·수장시설(수장고, 보존실, 하역장), 운영·관리시설(사무실, 창고, 직원휴게실 등)
Kim, Ahn & Kim (2018)	- 이용자 측면 : 전시영역, 서비스영역, 교육영역 - 관리자 측면 : 수장영역, 연구영역, 운영 및 관리영역
Choi (2017)	- 전시영역 :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멀티미디어실 등 - 수장영역 : 수장고, 소장자료실, 하역장, 유품처리실 등 - 연구 및 교육영역 : 연구실, 세미나실, 소강당, 강의실, 자료실 등 - 운영 및 관리영역 : 관장실, 사무실, 회의실, 유지관리실 등 - 서비스영역 : 로비 및 홀, 안내 및 대표소, 자원봉사자실, 서점 및 뮤지엄샵, 레스토랑, 물품보관소, 수유실, 위생시설 등

↓

• 공공영역 : 전시시설(상설 및 기획전시공간) / 교육시설(강의실, 강당, 세미나실 등) / 서비스시설(로비 및 홀, 안내 및 대표소, 물품보관소, 수유실, 뮤지엄샵, 레스토랑 및 카페, 위생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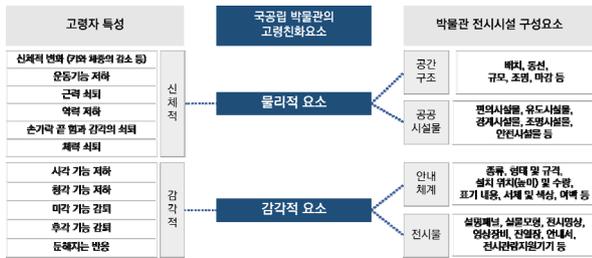
• 비공공영역 : 연구·수장시설(연구실, 수장고, 보존실, 하역장, 유품처리실 등) / 운영·관리시설(사무실, 직원휴게실, 창고 등)

3) 서울특별시조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시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2022, 9.
5) 법률 제19481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장 제10조.
6) 법률 제19481호, op.cit., 제3장 12조.
7) 김화순, 에코뮤지엄 개념의 지역박물관 건립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다누리골 에코뮤지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중문화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3. 국공립 박물관의 고령친화요소 분석 체크리스트

본 연구는 국공립 박물관의 고령친화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고령자 관점에 기초한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고자 Yoon, Song, & Kim(2017); Lee & Lee(2016); Oh & Park(2016); Kim(2012), Lee(2011)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령자 특성을 ‘신체적, 감각적’ 측면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고령친화, 박물관’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Korean Craft & Design Foundation(2022); Museum Development Network (2019);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13)의 선행연구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와 현재 법령 및 제도에서는 ‘신체적, 감각적’ 측면의 고령자 특성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물리적 요소’, ‘감각적 요소’로 구분하여 재정리하였으며, 세부내용에 기초한 분석항목을 작성함에 따라 다음 <표 2>의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다.



<그림 1> 국공립 박물관의 고령친화요소 추출과정

<표 2> 공립 박물관의 고령친화요소 분석 체크리스트

구분	분석 항목	
물리적 요소	공간 구조	A1 박물관 내·외부의 주요 동선을 단차없이 조성하거나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계단 및 경사로에 '핸드레일 및 눈슬립 설치' 등의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가
		A2 고령자를 포함한 교통약자를 고려해 자동문과 수동문이 함께 설치된 주출입구 및 대기공간을 포함한 방풍실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A3 고령자의 신체적 변화를 고려하여 주요시설 간의 이동동선 내에 '대기, 휴식' 등이 가능한 개방형의 내부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A4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중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의 이동설비 계획이 함께 반영되어 있는가
	공공 시설물	B1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관람객이 안내데스크 및 종합안내소 등의 안내시설물을 빠르게 인지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배치되어 있는가
		B2 박물관 내 이동 및 전시관람이 용이하도록 로비 공간에 전시관람 지원 및 대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
		B3 고령자의 이동을 고려하여 박물관 내에 '휴게공간, 간이심터'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
		B4 고령자의 안전 및 응급상황을 고려하여 '소화기, 구급함, 자동제세동기' 등의 안전시설물이 인지하기 쉬운 곳에 배치되어 있는가
안내 체계	C1 박물관의 명칭 사인을 고령자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원거리에서도 인지할 수 있는 규격 및 색채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가	
	C2 고령자의 가독성과 시인성을 고려하여 박물관 주요시설의 위치 및 동선을 설명하는 픽토그램 및 안내사인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가	
	C3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박물관 주요시설 출입구에 비상대피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가	
	C4 박물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키오스크형 정보안내기기를 고령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및 도우자가 배치되어 있는가	
전시물	D1 고령자의 감각기능 변화를 고려하여 전시주제와 관련된 전시체험 요소를 다양한 감각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D2 고령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전시물의 설명사인 부착 및 검색대 화면 내 '큰 글자 안내'의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가	

전시물	D3 전시물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 측면 뿐만 아니라 '음성 설명, 음성 가이드 투어와 같이 청각적 측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
	D4 영상전시 뿐만 아니라 전시체험 콘텐츠를 포함한 디지털전시물을 쉽게 조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4. 사례 분석

4.1. 사례 대상 개요

본 연구는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국공립 문화시설 내 고령자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바탕으로 2020년대 이후에 고령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서울시 박물관·미술관⁸⁾' 홈페이지 내 국공립 박물관 사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령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 6곳을 선정하였다. 사례 대상 개요는 <표 3>과 같다.

<표 3> 사례 대상 개요

사례	사례명	위치	고령자 특화 프로그램	연면적
A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전통문화배움터를 활용한 문화동행교육 프로그램 운영	25,470m ²
B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18,284m ²
C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9	한글 서체를 활용한 체험 및 전시관람 프로그램 운영	11,322m ²
D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서울 중구 의주로2가 16-4	55+ 시니어 세대를 위한 웰에이징 문화 프로그램 운영	24,526m ²
E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종로구 율곡로3길 4	장벽없는 동행 교육이 가능한 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	10,657m ²
F	한성백제박물관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어르신 대상 약자동행 교육 프로그램 운영	19,300m ²

4.2. 사례 분석

(1) 사례 A :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은 전통과 근현대의 민속문화를 수집, 연구, 보존 및 전시함으로써 민속문화를 전승할 뿐만 아니라 미래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K-Culture 박물관이다. 한국의 생활문화 및 국내의 민속을 주제로 하는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문화배움터를 통해 고령자 대상의 문화동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⁹⁾ 분석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사례 A. 국립민속박물관

구분	국립민속박물관			
	위치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개관(리모델링)	1945년(2018년)	연면적	25,470m ²	
공간개요	공공영역 공간구성			
		- 전시시설(상설전시실1~3, 기획전시실1~2) - 교육시설(강당, 정보검색실, 영상채널스튜디오) - 서비스시설(로비, 안내데스크, 뮤지엄샵, 카페, 휴게실, 수유실, 화장실)		

8)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http://gomuseum.seoul.go.kr/web/main.do>

9) 국립민속박물관, <https://www.nfm.go.kr/home/index.do>

		물리적 요소	
이미지			
	감각적 요소		
분석요소	분석내용		
	공간 구조	A1	외부환경에서 주출입구로의 접근이 가능한 계단과 경사도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내부 주요시설은 단차가 없는 공간 구조로 구성됨
물리적 요소	A2	고령자와 같은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주출입구에 자동문과 수동문을 함께 설치하고 있으며, 대기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풍실의 구조를 갖춘	
	A3	고령자의 신체적 변화에 따른 운동기능 저하를 고려하여 박물관 내 공공영역의 시설이 단차가 없는 개방된 구조로 형성됨	
	A4	공공영역의 내부 주요시설이 단차가 없는 한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계단 및 승강기 이용 없이 관람이 가능한 구조를 형성함	
	공간 시설물	B1	안내시설물의 빠른 인지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구 인근에 전시관람과 이용을 안내 및 지원하는 안내데스크가 배치됨
감각적 요소	B2	안내데스크를 통해 '힐체어 대여, 전시해설' 등의 전시관람 지원 및 대어 서비스를 제공하나,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B3	로비공간에 카페를 구성하여 휴식의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이동 중 휴식을 고려하여 전시시설 및 로비, 복도 곳곳에 휴식이 가능한 가구를 배치함	
	B4	공공영역의 각 시설마다 안전 및 응급상황을 고려한 안전시설물이 설치됨	
	안 내 체 계	C1	고령자의 식별성을 고려하여 글자색(진화회색)과 배경색(흰색)의 명도차를 적용하여 가로형의 명칭사인을 외부 주출입구에 설치함
C2		고령자의 시각기능 저하에 따른 시인성을 고려하여 '색상과 명도차 적용, 글자크기 확대' 등의 반영 및 동선을 설명하는 바닥안내사인이 적용됨	
C3		공공영역의 주요시설에 비상안내대피도를 설치하였고 전시시설 입구에 이동동선과 함께 소화전이 비치된 위치를 설명하는 평면도 형태의 안내사인을 설치함	
C4		키오스크형 정보안내기가 배치가 아닌, 별도의 '정보검색실' 공간을 통해 박물관에 관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나 이용안내가 가능한 직원 배치 등의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전 시 물	D1	전시물과 연관되어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요소를 전시컨텐츠로 반영하여 다양한 감각기능을 활용한 전시관람이 가능함	
	D2	작은 글씨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큰 글씨와 전시물 이미지를 함께 반영한 전시물 설명 책자를 각 전시시설의 입구에 별도로 비치함	
	D3	안내데스크를 통한 전시해설 프로그램의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부 전시물의 경우에는 전시 설명 사인물에 음성 안내 시스템을 함께 적용됨	
	D4	관객의 모션에 따라 반응하는 전시를 디지털전시물로 구성하여 안내도우미를 통한 조작 및 이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	

(2) 사례 B :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 및 역사에 관한 왕실 유물의 보존과 복원 과정을 통해 전시를 기획하고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이다. 또한, '왕실문화 향유기반 확대 및 문화로의 행복한 삶 구현'의 비전을 수립하여 관람객 체감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해 고령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¹⁰⁾ 분석내용은 <표 5>와 같다.

10) 국립고궁박물관, <https://www.gogugong.go.kr/gogung/main/main.do>

<표 5> 사례 B. 국립고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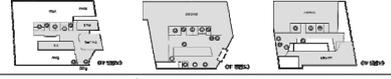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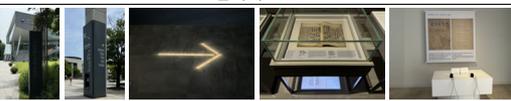
구분		국립고궁박물관			
공간개요	위치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개관(리모델링)	1908년(2020년)	연면적	18,284m ²	
공간개요	공공영역 공간구성				
		- 2F : 서비스시설(로비, 안내데스크, 물품보관소, 응급대기실, 화장실) - 1F : 서비스시설(수유실, 뮤지엄샵, 카페, 휴식공간, 화장실) / 교육시설(문화유산 나눔방) / 전시시설 - B1F : 서비스시설(식수대,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 전시시설			
이미지	물리적 요소				
이미지	감각적 요소				
분석요소	분석내용				
	공간 구조	A1	외부환경에서 주출입구로의 접근이 가능한 계단과 경사도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각 층별 내부시설은 단차가 없는 공간 구조로 구성됨		
물리적 요소	A2	박물관 입구와 출구를 구분한 양쪽 주출입구에 자동문만 설치되어 있으나, 대기 및 휴식의 기능을 하는 방풍실의 구조를 갖춘			
	A3	각 층별로 로비공간에서 주요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단차가 없는 개방된 구조로 형성됨			
	A4	계단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핸드레일 및 눈슬립 설치 계획이 반영되었고 각 층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음			
	공간 시설물	B1	안내시설물의 빠른 인지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입구 방향 인근에 전시관람과 이용을 안내 및 지원하는 안내데스크가 배치됨		
안 내 체 계	B2	로비공간 내 안내데스크를 통해 전시관람 지원 및 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B3	카페 및 개방된 구조의 휴식공간 구성 뿐만 아니라 전시시설 내 고령자의 이동 중 휴식이 가능한 가구를 배치함			
	B4	고령자를 포함한 관람객의 안전 및 응급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주요시설 내에 안전시설물과 설명 사인을 배치함			
	감각적 요소	C1	석재 마감이 된 벽면에 금속 재료를 사용한 가로형의 명칭 사인을 설치하여 마감계획을 통해 명칭사인의 식별성을 고려함		
C2		'색상과 명도차 적용, 큰 글씨 반영' 등의 계획을 통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벽과 기둥에 검정색의 안내사인 및 픽도그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동동선을 설명하는 바닥안내사인이 적용됨			
C3		각 공공영역마다 안전시설물과 함께 비상안내대피도가 배치됨			
C4		키오스크형 정보 안내기가 로비공간 한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어 시설물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각 층별로 안내직원, 인공 지능 로봇기기를 함께 배치하여 안내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함			
전 시 물	D1	시각적, 청각적 측면의 전시물만 구성하고 있어 다양한 감각기능 발달 및 자극이 가능한 전시체험 요소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음			
	D2	작은 글씨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큰 글씨가 반영된 전시물 설명 책자를 각 전시시설의 입구에 별도로 비치함			
	D3	안내데스크에 별도로 '음성안내기 대여' 서비스 공간을 구성하였고 관련 안내 사항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큰 글씨가 반영된 현수막을 설치함			
	D4	전시물에 관한 설명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전시만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전시물 설명 사인 없이도 전시 내용의 파악이 용이함			

(3) 사례 C :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에 관한 자료를 조사·수집 및 연구를 통해 한글만의 문자적,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전시공간을 구성하여 한글의 미래 가치를 국내외로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자 문해 교육 단체와 연계

를 이뤄 한글 서체를 활용한 체험 및 박물관 전시관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¹¹⁾ 분석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사례 C. 국립한글박물관

구분		국립한글박물관	
공간개요	위치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9	
	개관(리모델링)	2014년	연면적 11,322m ²
공간개요	공공영역 공간구성		
		- 3F : 서비스시설(로비, 안내데스크, 물품보관·대여소, 화장실) / 전시시설(기획전시실) / 교육시설(한글놀이터) - 2F : 서비스시설(로비, 안내데스크, 물품보관·대여소, 수유실, 뮤지엄샵, 카페, 화장실) / 전시시설(상설전시실) - 1F : 서비스시설(로비, 중정, 안내데스크, 물품대여소, 화장실) / 교육시설(한글도서관, 강의실) - 별관1실 : 관람객 휴식공간	
이미지	물리적 요소		
			
이미지	감각적 요소		
			
분석요소		분석내용	
공간 구조	물리적 요소	A1	외부환경에서 주출입구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단 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이동설비 계획이 함께 반영되었고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각 층별 내부시설은 단차가 없는 공간 구조로 구성됨
		A2	주출입구에 수동문을 설치하여 출입구의 방향을 구분하고 있으며 자동문도 함께 설치되어 있는 방풍실의 구조를 갖춘
		A3	각 층마다 로비공간에서 주요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단차가 없는 개방된 구조로 형성되었고 바닥 마감을 통해 공간을 구분함
		A4	계단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핸드레일 및 눈슬립 설치 계획이 반영되었고 각 층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승강기 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가 함께 설치되어 있음
공공 시설	물리적 요소	B1	안내시설물의 빠른 인지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박물관 주출입구 인근에 전시관람과 이용을 안내 및 지원하는 안내데스크가 배치됨
		B2	로비공간 내 안내데스크를 통해 전시관람 지원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관련 안내 설명 사인 및 시설이 별도로 마련 되어있지 않아 이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B3	개방된 구조의 휴식공간 구성 뿐만 아니라 내부 주요시설로의 접근이 가능한 이동공간 내에 고령자의 이동 중 휴식이 가능하도록 가구를 배치함
		B4	고령자를 포함한 관람객의 안전 및 응급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주요시설 내에 안전시설물을 배치함
안 내 체 계	감각적 요소	C1	박물관이 조성된 외부환경에 원거리에서도 인지하기 쉬운 크기의 세로형 명칭 사인에 '색상과 명도차 적용'의 계획을 반영하여 고령자의 시인성을 고려함
		C2	고령자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색상과 명도차 적용'의 계획을 통해 화이트 톤의 벽면에 Black의 색채를 안내사인, 픽토그램에 적용하고 있으며 조도가 낮은 공간에는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안내체계를 적용함
		C3	각 공공영역마다 안전시설물과 함께 비상안내대피도가 배치됨
		C4	별도의 키오스크형 정보안내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로비 공간에 미디어 월이 설치되어 있음
전 시 물	감각적 요소	D1	시각적, 청각적 측면의 전시물만 구성하고 있어 다양한 감각기능 발달 및 자극이 가능한 전시체험 요소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음
		D2	명도 대비차를 반영한 설명 사인을 부착하였으나, '큰 글씨 안내'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일부 전시공간은 조도가 낮아 전시물 설명사인의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D3	안내데스크 및 박물관 내부 전시시설에 '음성 설명, 음성 가이드 투어'와 같은 청각적 측면의 프로그램 제공 여부에 관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D4	실감영상을 통한 전시 뿐만 아니라 전시물과 관련된 디지털 체험 컨텐츠를 함께 구성하고 있으며, 단순 조작을 통한 체험으로 화면에서 조작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어 이용 및 조작에 용이함

11) 국립한글박물관, <https://www.hangeul.go.kr/>

(4) 사례 D :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은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서소문의 기억과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조성되어 천주교 사상과 함께 조선 후기 종교 신앙에 관한 사상계의 흐름 및 서소문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주제로 하는 전시를 통해 평화와 공존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문화공간의 역할을 갖는 박물관이다.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박물관 콘솔레이션 홀을 활용하여 55+세대에 속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니어 웰에이징 콘서트'와 같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¹²⁾ 분석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사례 D.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구분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공간개요	위치	서울 중구 의주로2가 16-4		
	개관(리모델링)	2019년	연면적	24,526m ²
공간개요	공공영역 공간구성			
		- 1F : 외부공간(서소문역사공원, 박물관 입구 등) - B1F : 서비스시설(로비, 안내데스크, 뮤지엄샵, 도서관 명례방, 화장실 등) - B2F : 전시시설(기획전시실) / 교육시설(소강당) / 서비스시설(성형하상 기념경당, 화장실 등) - B3F : 전시시설(상설전시실) / 서비스시설(화장실)		
이미지	물리적 요소			
				
이미지	감각적 요소			
				
분석요소		분석내용		
공간 구조	물리적 요소	A1	외부환경에서 주출입구로의 접근이 가능한 계단과 경사로 및 승강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고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각 층별 내부시설은 단차가 없는 공간 구조로 구성됨	
		A2	박물관 주출입구에 자동문과 수동문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대기 및 휴식의 기능을 하는 방풍실의 구조를 갖춘	
		A3	각 층마다 로비공간에서 주요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단차가 없는 개방된 구조로 형성되었고 바닥 마감을 통해 공간을 구분함	
		A4	내외부의 계단 및 경사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핸드레일 및 눈슬립 설치 계획이 반영되었고 외부환경에서 각 층별 내부 로비공간으로의 이동까지 가능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음	
공공 시설	물리적 요소	B1	안내시설물의 빠른 인지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박물관 주출입구 인근에 전시관람과 이용을 안내 및 지원하는 안내데스크가 배치됨	
		B2	로비공간 내 안내데스크를 통해 전시관람 지원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관련 안내 설명 사인 및 시설이 별도로 마련 되어있지 않음	
		B3	개방된 구조의 휴식공간 구성 뿐만 아니라 내부 주요시설의 접근이 가능한 이동공간 내에 고령자의 휴식을 고려한 가구를 배치함	
		B4	고령자를 포함한 관람객의 안전 및 응급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주요시설 내에 안전시설물을 배치함	
안 내 체 계	감각적 요소	C1	박물관이 조성된 서소문역사공원의 각 입구마다 원거리에서 인지하기 쉬운 크기의 가로형, 세로형의 명칭 사인에 '색상과 명도차 적용'의 계획을 반영하여 고령자의 시인성을 고려함	
		C2	고령자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색상과 명도차 적용'의 계획을 통해 전체적으로 Dark톤의 벽면에 화이트 색채의 안내사인, 픽토그램의 적용과 함께 이동동선을 설명하는 바닥안내사인이 적용됨	
		C3	각 공공영역마다 안전시설물과 함께 비상안내대피도가 배치됨	
		C4	별도의 키오스크형 정보안내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각 층마다 박물관 및 전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월 및 팸플릿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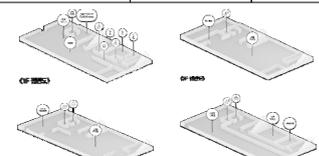
12)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https://www.seosomun.org/main.do>

감각적 요소	전시물	D1	시각적, 청각적 측면의 전시물만 구성하고 있어 다양한 감각기능 발달 및 자극이 가능한 전시체험 요소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음
		D2	전시물의 설명 사인오로만 내용이 파악 가능한 기획전시의 경우에만 고령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큰 글씨 안내' 계획이 반영됨
		D3	안내데스크 및 박물관 내부 전시시설에 '음성 설명, 음성 가이드 투어'와 같은 청각적 측면의 프로그램 제공 여부에 관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D4	전시물에 관한 설명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전시만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조작 및 이용 안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안내도우미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음

(5) 사례 E : 서울공예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은 서울특별시 (구) 풍문여자고등학교 5개의 동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한국 최초의 공립 공예박물관으로 공예품 전시를 통해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를 기록 및 연구,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전통과 현대, 예술과 생활을 연결하는 '공예 허브' 역할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자 대상의 장벽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의 소근육 발달, 치매 예방 및 인지 기능 강화를 위한 오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¹³⁾ 분석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사례 E. 서울공예박물관

구분		서울공예박물관		
		위치	서울 종로구 율곡로3길 4	
공간개요	개관(리모델링)	2021년	연면적	10,657m ²
	공공영역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동(1F) / 전시동(1F~3F) / 교육동(어린이박물관 / 1F~4F) - 안내동 : 서비스시설(로비, 안내데스크, 카페, 뮤지엄 샵, 확장실 등) - 전시동 : 서비스시설(로비, 안내데스크, 도서실, 휴게실, 확장실 등) / 전시시설(특별전시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공예 아카이브실) 		
이미지	물리적 요소			
	감각적 요소			
분석요소		분석내용		
물리적 요소	공간 구조	A1	일부 단차가 발생하는 외부환경과 로비동 건물 내 조성된 기념품샵 공간에 계단 뿐만 아니라 경사로가 함께 설치됨	
		A2	안내동을 제외한 전시동의 주출입구는 수동문만 설치되어 있으며, '대기와 휴식'의 기능을 제공하는 방풍실 또한 안내동과 전시3동의 건물에만 구성되어 있음	
		A3	박물관 각 건물의 내부 주요시설을 개방형 구조로 조성하였고 각 건물 로비공간을 통해 내부 공간을 연결하는 구조를 갖춘	
		A4	각 전시동 건물의 로비공간이 단차없이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하며, 각 층으로의 이동을 고려하여 핸드레일 및 눈송림 설치 계획이 반영된 계단과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음	
공공 시설물		B1	각 전시동 건물마다 주출입구 인근 또는 로비공간 중앙에 전시를 관람하고 이용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는 안내데스크를 배치함	
		B2	각 전시동 건물 안내데스크를 통해 휠체어 대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고 이동공간에 물품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련 안내 설명 사인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13) 서울공예박물관, <https://craftmuseum.seoul.go.kr/main>

물리적 요소	공공 시설물	B3	각 전시동의 로비공간마다 휴식을 위한 가구가 배치되어 있으며, 전시관람 및 이동 중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각 층별로 전시공간을 연결하고 있는 이동공간에 가구를 배치하여 간이침대를 구성함
		B4	각 층별로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주요시설 내에 안전 및 응급상황을 고려한 안전시설물이 곳곳에 배치됨
감각적 요소	안내 체계	C1	가로형과 세로형의 명칭 사인을 박물관 외부환경에 설치하였으나, 글자와 배경색이 유사한 색채로 적용되어 원거리 인지도가 부족함
		C2	고령자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박물관 주요시설의 위치를 설명하는 픽도그램 및 안내사인과 전시공간 내 이동을 고려한 바닥안내사인을 적용하였으나, 글씨 크기 고려에 관한 계획이 반영되지 않음
		C3	각 층별로 안전시설물과 함께 비상 시에 탈출이 가능한 계단 인근 벽면에 비상대피안내도를 배치함
		C4	안내데스크 옆쪽에 키오스크형 정보안내기기를 배치하여 직원을 통한 직접적인 이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감각적 요소	전시물	D1	'공예'라는 주제와 관련된 전시물 설치와 함께 실제 작품의 질감, 문양 등을 직접 만져보며 체험 할 수 있는 전시연출을 통해 시각과 청각, 촉각적 측면을 반영한 전시공간을 구성함
		D2	전시물의 설명 사인에 전시물 형태를 단순화시킨 픽도그램을 함께 반영하여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전시물에 관한 내용 파악이 가능하나, 큰 글씨 안내 계획은 반영되지 않음
		D3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안내데스크를 통한 전시해설 스마트 기기 및 음성 안내 기기의 대어 서비스를 제공함
		D4	전시물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전시를 디지털전시물로 주로 구성함으로써 별도의 조작 및 이용 안내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안내도우미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음

(6) 사례 F :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서울지역을 처음 도입으로 삼았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 유적과 유물을 조사·연구 및 관리·활용 할 뿐만 아니라 서울과 한강유역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이다. 이러한 전시 주제를 바탕으로 고령자와 연관된 기관과의 연계성을 통해 전시관람을 지원하고 전시와 관련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르신 대상 약자동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¹⁴⁾ 분석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사례 F. 한성백제박물관

구분		한성백제박물관		
		위치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공간개요	개관(리모델링)	2012년	연면적	24,526m ²
	공공영역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F : 외부공간(하늘정원) / 서비스시설(식당, 확장실) - 1F : 전시시설(전시실1~3, 영상전시관 등) / 서비스 시설(확장실) - B1F : 서비스시설(로비, 안내데스크, 확장실) / 전시 시설(전시실1, 기획전시실, 시민참여전시실) - B2F : 교육시설(강의실, 강당, 세미나실 등) / 서비스 시설(물품보관함, 정보자료실, 확장실, 주차장 등) 		
이미지	물리적 요소			
	감각적 요소			

14) 한성백제박물관, <https://baekjemuseum.seoul.go.kr/>

분석요소		분석내용	
물리적 요소	공간 구조	A1	외부환경에서 주출입구로의 접근은 단차가 없는 구조로 조성되어 있으며, 내부 주요시설은 각 층별 이동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핸드레일 및 눈슬립 설치 계획이 반영된 경사로가 함께 설치됨
		A2	박물관 주출입구는 수동문만 설치되어 있으나, 방풍실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내외부로 이동 전 대기 및 휴식의 기능을 제공함
		A3	각 층마다 공공영역의 주요시설간의 접근이 용이한 개방된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나, 전시연출에 의한 일부 단차가 발생하고 있음
		A4	계단과 경사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핸드레일 및 눈슬립 설치 계획이 반영되었고 각 층의 이동이 가능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음
	공공 시설물	B1	안내시설물의 빠른 인지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박물관 주출입구 인근에 전시관람과 이용을 안내 및 지원하는 안내데스크가 배치됨
		B2	안내데스크를 통해 전시관람 지원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관련 안내 설명 사인 및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음
		B3	로비공간에 개방된 구조의 휴식공간 구성 뿐만 아니라 내부 주요 시설로의 접근이 가능한 이동공간 내 이동 중 휴식이 가능한 가구를 배치함
		B4	고령자를 포함한 관람객의 안전 및 응급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주요시설 내에 안전시설물을 배치함
감각적 요소	안내 체계	C1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한 박물관 입구에 원거리에서 인지하기 쉬운 크기의 세로형의 명칭 사인과 주출입구에 가로형의 명칭 사인을 모두 설치하여 고령자를 포함한 관람객의 인지가 용이하게 함
		C2	고령자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색상과 명도차 적용'의 계획을 통해 대부분 화이트 톤의 벽면에 Black의 색채를 안내체계를 적용함
		C3	각 공공영역마다 안전시설물과 함께 비상안내대피도가 배치됨
		C4	키오스크형 정보안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로비공간과 각 층의 전시시설 입구마다 박물관 및 전시주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월 또는 팸플릿을 제공함
	전시물	D1	시각적, 청각적 측면의 전시물만 구성하고 있어 다양한 감각기능 발달 및 자극이 가능한 전시체험 요소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음
		D2	전시주제를 설명하는 사인의 글씨 크기에 관한 고려는 부족하나, 전시물 설명 내 핵심 내용에 큰 글씨 안내 계획이 일부 반영됨
		D3	안내데스크를 통해 전시해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단체예약을 통한 전시관람 시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D4	전시물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전시가 디지털전시물로 주로 구성되어 별도의 조작 및 이용 안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안내도우미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음

4.3. 소결

서울지역 소재 국공립 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고령친화요소를 ‘공간구조, 공공시설물’을 포함하는 물리적 요소, ‘안내체계, 전시물’을 포함하는 감각적 요소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체크리스트 각 항목의 적용 정도에 따라 모두 적용된 경우 ●, 일부 적용된 경우 ◐, 모두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으로 표기하였다. 결과를 종합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국공립 박물관의 고령친화요소 종합 분석결과

분석요소		항목	A	B	C	D	E	F
물리적 요소	공간 구조	A1	●	●	●	●	●	●
		A2	●	◐	●	●	◐	◐
		A3	●	●	●	●	●	◐
		A4	●	●	●	●	●	●
	공공 시설물	B1	●	●	●	●	●	●
		B2	◐	◐	◐	◐	◐	◐
		B3	●	●	●	●	●	●
		B4	●	●	●	●	●	●
감각적 요소	안내 체계	C1	●	◐	●	●	◐	●
		C2	●	●	●	●	◐	●
		C3	●	●	●	●	●	●
		C4	○	◐	○	○	●	○
	전시물	D1	●	○	○	○	●	○
		D2	●	●	◐	◐	◐	◐
		D3	●	●	○	○	●	◐
		D4	●	◐	●	◐	◐	◐

물리적 요소의 공간구조를 분석한 결과, 모든 사례에서 외부 환경에서 주출입구로의 접근까지 일부 단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고령자와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 및 접근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핸드레일 설치 및 눈슬립 마감이 반영된 계단과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고 있었다. 특히 사례 C는 박물관의 내·외부 주요 동선을 고려한 승강기 설치 뿐만 아니라 외부 접근 경로과 각 층별 이동 동선 내에 에스컬레이터를 함께 설치하여 전시관람 및 고령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배움터로의 접근이 용이한 이동 설비 계획을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사례 B와 사례 C 경우에는 박물관의 입구와 출구를 구분하여 동선을 유도하고 있어 고령자를 포함한 관람객 동선의 혼잡도를 최소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모든 사례는 각 층별로 단차가 없는 공간 구조를 구성하였으며, 바닥 마감을 통해 공공영역의 공간을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례 E, 사례 F의 경우 주출입구에 수동문만 설치되어 있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령자의 이동 및 접근과 근력 쇠퇴에 따른 약력 저하로 인한 출입문 개폐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는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요소의 공공시설물을 분석한 결과, 모든 사례의 로비 공간 내 주출입구 인근에 안내데스크가 위치해 박물관 이용 및 전시관람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나, 전시관람을 지원하는 대여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파악이 용이한 안내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이동 중 휴식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사례에서 로비 공간이 구성된 층에 휴게공간, 카페 등을 구성하였고 전시시설 또한 전시관람 중 휴식이 가능한 가구를 배치하고 있었다. 특히 사례 A, 사례 B, 사례 C, 사례 F의 경우 박물관 공공영역이 밀집되어 있는 이동공간 내 휴식이 가능한 벤치형의 가구를 배치하고 있었다. 또한, 고령자를 포함한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모든 사례에서 공공영역의 각 공간 내에 소화기, 자동제세동기 등의 안전시설물이 갖추어져 있었다.

감각적 요소의 안내체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례에서 박물관의 명칭 사인과 박물관 주요시설의 위치 및 동선을 설명하는 픽토그램, 안내사인에 ‘색상 및 명도차’의 계획이 반영되었으며 고령자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의 벽면 및 기둥에 무채색의 Black 색채를 사용한 픽토그램, 안내사인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영역의 공간 중 전시시설 내부에는 바닥동선 안내사인을 함께 적용하여 전시관람 동선을 유도하고 있었다. 또한, 공공영역의 공간 내부와 이동공간에는 비상 대피안내도를 설치하여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었다. 특히 사례 A의 경우 각 전시시설 입구에 전시관람 동선과 함께 소화시설물이 비치되어 있는 위치를 포함하는 평면도 형태의 안내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키오스크형 정보안내 시설물 측면에서 사례 B, 사례 E를 제외한 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사례 B의 경우 해당 시설물 인식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 A는 키오스크형이 아닌 ‘정보검색실’

의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였으나, 해당 공간의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례 C, 사례 D, 사례 F는 미디어 월 또는 팸플릿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감각적 요소의 전시물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례 A와 사례 E에서만 고령자의 다양한 감각기능 발달을 위한 전시 콘텐츠를 전시시설 내부에 갖추고 있었다. 사례 A는 한국 전통 재료에 관한 전시물과 연계되는 콘텐츠로 실제 재료를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촉각적 측면의 체험요소를 반영하였다. 사례 E 또한 실제 공예품의 질감 및 문양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구현된 체험요소를 함께 반영하여 사례 A와 사례 E 모두 시각, 청각적 측면을 주로 반영하는 전시물 구성에서 촉각적 측면을 고려한 체험요소를 함께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각적 측면에서 사례 A와 사례 B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고령자의 가독성을 고려한 전시물 설명의 글씨 크기 확대 등과 같은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청각적 측면에서 전시물에 관한 음성 설명 및 기기 대여와 음성 가이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례에서 음성 설명 기기 대여 및 음성 가이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작은 글씨의 안내판으로 부착되어 있어 인지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디지털 전시물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전시물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전시, 실감영상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안내도우미가 전시시설 내에 배치되어 있어 관련 이용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5. 결론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의 여가 및 사회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문화시설에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공립 박물관 이용에 있어 고령친화요소 또한 고려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어 고령자 관점에서 국공립 박물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서울지역 소재 국공립 박물관 사례 중 고령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2020년대 이후 고령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 6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분석 과정을 통해 국공립 박물관의 고령친화요소로 공간구조와 공공시설물을 포함하는 ‘물리적 요소’, 안내체계와 전시물을 포함하는 ‘감각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물리적 요소의 공간구조는 박물관 내외부 배치 및 동선 등을 포함하며 공공시설물은 편의시설물, 유도시설물, 안전시설물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감각적 요소의 안내체계는 안내사인과 픽토그램의 종류, 형태 및 규격, 설치 위치, 서체 및 색상 등을 포함하며 전시물은 설명패널, 실물모형, 영상 전시물 및 전시관람 지원 기기, 프로그램, 팸플릿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둘째, 국공립 박물관의 고령친화요소 중 물리적 요소의 적용보다 감각적 요소의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

건축물에서 고령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기존 법령 및 제도에서 ‘편의시설 설치’,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 구성 및 디자인에 해당하는 물리적 요소가 중점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과 연관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국공립 박물관의 전시 콘텐츠와 같이 공공 건축물의 기능적 측면에 해당하는 공간 프로그램 등의 이용에 있어 감각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공립 박물관의 고령친화요소 중 공간구조와 공공시설물을 포함하는 물리적 요소가 가장 잘 나타났다. 많은 사례에서 핸드레일과 논슬립이 설치된 계단 및 경사로와 함께 이동 설비 계획이 반영되어 고령자를 포함한 관람객의 다양한 이동 방식과 접근 경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물관의 공공영역을 개방된 구조로 형성하여 공공시설물의 위치 파악이 용이하였고 고령자의 이동 중 휴식이 가능한 공간 구성이 이루어졌다. 공공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개방된 구조인 경우 바닥 마감 계획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휴식의 기능을 포함하는 공간은 프라이버시를 허용하는 이동식 칸막이 등을 일부 벽면에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면 물리적 요소 측면에서 고령자의 공간 인지가 용이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넷째, 안내체계와 전시물을 포함하는 감각적 요소 측면에서 고령자의 시각기능 저하에 따른 시인성을 고려하여 안내사인 및 전시물 설명사인 내 글씨 크기 조정에 관한 적용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와 같이 시각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관람객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색상 및 명도차’를 적용한 계획 뿐만 아니라 주요시설에 관한 명칭이나 전시물 핵심내용 등에 글씨 크기 조정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시물의 안내체계의 경우에는 전시시설 입구에 고령자의 가독성을 고려한 ‘큰 글자 안내’와 같은 전시물 안내책자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전시관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감각적 요소 중 전시물 측면에서 전시 주제와 관련된 설명패널 및 실물모형, 영상 전시물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 청각적 측면의 콘텐츠를 반영한 전시연출만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감각기능을 활용한 전시체험요소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발달 등에 다감각적 자극 요법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고령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뿐만 아니라 전시물의 질감, 문양 등을 구현하여 직접 만져볼 수 있거나 전시주제와 관련된 향기를 함께 제공하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전시 체험 콘텐츠를 구성할 경우 고령자와 같이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관람객을 고려하여 안내 도우미 배치, 음성안내 등의 시스템 구축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면 내에서 조작을 유도하는 기능적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령자 특성에 기초한 국공립 박물관의 고령친화

소를 도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고령자의 이용을 고려한 공공 문화시설로의 개선 및 발전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최근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 현상에 기초하여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관련되는 정책을 국내에서도 수립하고 있으며, 문화취약계층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문화형성을 이루는 공공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 등을 수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누구나 전시관람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국공립 박물관을 고령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관찰조사 또는 심층 면접조사를 통한 사용자 중심의 분석을 실시한다면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Choi, D. G. (2017). *A Study on Analysis of Programs and Space Composition of the Architecture & Urbanism Muse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2. Kim, H. S. (2013). *A Study on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the Construction of the Regional Museums Concept of Eco-Muse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Gyeonggi-do, Korea.
3. Kim, J. H. (2018). *A Study of differential relationships between zones in museums and number of visitors and collec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4. Kim, J. M., Ahn, J. K., & Kim, J. Y. (2018).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t Zone in the National Museum.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the Spatial Design*, 13(2), 183-196.
5. Kim, M. R. (2012).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Customized Residential Complex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Korea.
6. Korean Craft & Design Foundation. (2022). Universal Design Guideline for Exhibition.
7. Lee, E. Y., & Lee, D. I. (2016).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Space Design in point for the Elderly.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17(3), 389-401.
8. Lee, J. H. (2011). *A Study on the Space Design of Church Architecture Considering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Aged: Focused on the Continuous Evaluation Meth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9. Museum Development Network. (2019). Age-Friendly Museums.
10. Oh, J. Y., & Park, H. K. (2016). Comparative Analysis of Environment Design Checklist at Exhibition Facilities Based on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24, 277-287.
11. Roh, K. C. (2015). *A Study on Guideline of Public Design for Age-Friendly City: Focused on Silver Zon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12. Seo, M. J. (2023). *A Study on the Analysis Model and Improvement of Walking Environment for Aging-Friendly City: Focusing on Silver Zon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orea.
13.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Universal Design Guidelines for Cultural Facilities.
14. Wang, X. (2023). *The Influence of Museum Spatial Elements on the Formation of Museum Brand Im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15. Yoon, M. K., Song, K. S., & Kim, H. S. (2017). A Study on the Design of Muscle Fitness Equipment Considering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23(1), 403-415.

[논문접수 : 2024. 06. 28]
 [1차 심사 : 2024. 07. 15]
 [2차 심사 : 2024. 07. 26]
 [게재확정 : 2024. 07. 26]